



원자력 안전문화 10대원칙

01
Personal
Accountability

모든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에 책임이 있다.

02
Questioning
Attitude

모든 종사자는 자만하지 않고 모든 결함은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03
Safety
Communication

모든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에 중점을 두고 소통한다.

04
Stability

리더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

05
Decision Making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결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06
Respectful
Work
Environment

모든 종사자는 원자력 안전에 중점을 두고 환경을 조성한다.

07
Safety Culture

원자력 안전은 모든 종사자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조성된다.

08
Safety Concerns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은 자유롭게 제기되고 존중된다.

09
Environment for
Raising Concerns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은 자유롭게 제기되고 존중된다.

안

KHNP

전

KHNP

한

KHNP

빛

KHNP

현장에서 답을 찾는 안전관리 활동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 산업안전보건파트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는 1986년부터 총 6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으로 국가 전력 수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1,700여 명의 직원과 1,500여 명의 협력사 노동자가 근무하며, 다양한 직무와 환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안전’이다. 오늘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국내 최대 콘텐츠 갖춘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

한빛본부 산업안전보건파트는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개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직원과 협력사,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도 힘쓴다.

특히, 2023년부터는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실제 사고 상황을 체험하며 노동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연면적 1천 5백㎡, 지상 2층 규모로 기계·전기·건설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질식·전도 등을 체험할 수 있고, 가상현실(VR)을 통한 간접 체험도 지원한다. 또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진압, 규모 7.0의 지진 체험,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시행하여 일반시민, 학생 등 지역사회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상현 과장은 “고소 작업 시 안전대 착용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밀폐공간 작업 위험 체험, 사다리 작업 시 전도 위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 있는 체험형 산업안전교육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노동자는 단순한 이론 교육보다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실제로 교육장을 운영한 후 사업장 내 안전사고도 감소하는 추세다.

장정훈 대리는 “최근 몇 년 사이 산업 안전사고 건수가 8건에서 6건, 다시 3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며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전 관리 방법이다. 한빛본부 산업안전보건파트 역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노동자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현장 소음에 집중했다. 85데시벨을 초과하는 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3D 스캔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귀마개를 제작해 지급한 것이다. 이는 소음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의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사례로 평가된다.

장정훈 대리는 “일반 귀마개는 소음이 큰 작업 환경에서 노동자의 청력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소음성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 주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귀마개를 지급해 소음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시행한 밀폐공간 현장진단 컨설팅을 통해 한빛본부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질식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정밀한 유해공기 측정과 분석 기술을 활용해 발전소 내 밀폐공간을 전수 조사하고,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리에서 빠진 공간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질식이나 중독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도 참여해 협력사와 지역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컨설팅과 교육, 안전물품을 지원하며 지역 내 안전문화 정착 활동에 힘을 더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부담스럽거나 관련 서류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한빛본부는 전문 컨설팅 기관과 함께 협력사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련 서류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의 결실을 보기도 했다. 김정완 과장은 “협력사나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싶어도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들이 안전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생협력 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젊은 조직이 만드는 새로운 안전 문화

김신진 차장이 이끄는 한빛본부 산업안전보건파트는 비교적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새로운 방식의 안전활동을 시도한다. 팀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하며, 불필요한 회의는 하지 않는다. 젊은 감각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팀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무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형식적인 안전 캠페인에서 벗어난 안전 프로그램 기획하기도 했다. 300여 명의 직원과 협력사가 함께한 행사에서는 체험 프로그램과 안전 퀴즈,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참가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빛본부 산업안전보건파트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안전 문화는 ‘자율적인 안전’이다. 노동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선진 차장은 “예전에는 안전을 회사나 안전부서가 관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전은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치로,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진정한 안전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빛본부 산업안전보건파트는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앞으로도 현장 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노동자 의견 수렴, 안전 교육, 협력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전력 생산이라는 국가 핵심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고 있는 한빛본부 산업안전보건파트. 이들의 꾸준한 노력은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

“
안전은 스스로
실천하는 가치
”

한빛본부 산업안전보건파트

김 선 진

차장



Mini Interview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행동할 때 진정한 안전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현장의 안전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런 인식의 정착은 동료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안전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체험형 산업안전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도 구성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알리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